

것을 보면 古今의 愛陶家의 心情에 다를바가 없는 것을 알겠다. 正祖代의 文人이며, 愛陶家의 한 사람인 蕙庭 金鑣의 文集 蕙庭遺稿에 나오는 衆器五絶四十二首中 身邊의 白磁硯滴을 노래한 詩에 「甕院甲燔 薺齋言 純白好 蟾蜍靜似銀 上品權家造」—云의 絶句가 있는데 이 內容을 보면 아마 甕院權直長이 監造한 分院白磁를 읊은 듯해서 아마도 이 우직한 母子硯滴과는 지체가 다를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나는 이 시골 가마의 育심없는 솜씨에 한수를 더 높고만 싶다. 李教授가 이 두꺼비硯滴을 入手한 것은 먼 옛날 學生時節이라고 하며 東京에서 蘓山龍泉堂主人이 權域의 젊은 선비에게 格別한 配意로서 勸해준 것이라 한다. 그 當時 李教授는 거의 두달치의 學費를 이 두꺼비에 投資했다고 하니 이만저만 소중한 愛藏品이 아닌것을 짐작하고도 남겠다.

謙齋筆 漢陽北部八景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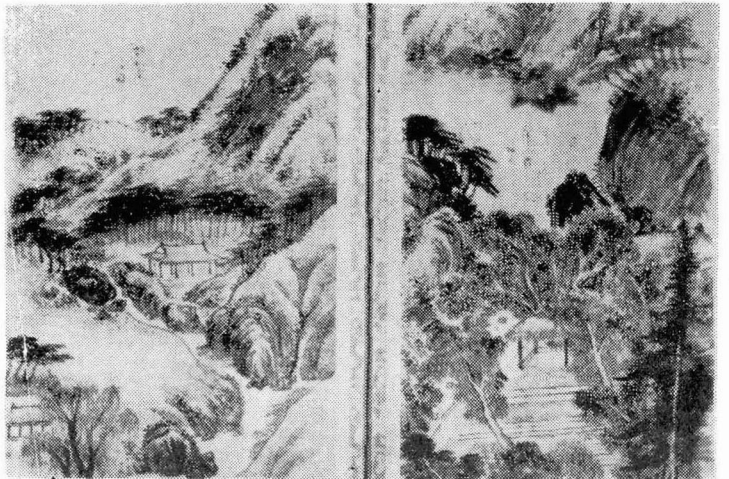
孟 仁 在

北岳과 仁王山은 지금도 매우 깨끗하며 傳來意識이 아니더라도 오래 본 사람이면 그 姿態를 동경할 수 있을 것이다. 王朝時代에는 이를 山의 많은 골짜기와 등성이에 재미있는 이름을 부치고 亭榭를 지어 讀書·閑遊하였음이 적지 아니 알려져 있으며 이들을 對象으로 한 畫人들의 墨蹟도 적지 않은 듯하다. 北部八景이라고 부른것은 그림이 八幅인 때문인 듯도 하지만 謙齋 스스로 中國이나 國內各地의 八景에 대한 歷史的慣習을 따라 그렇게 그린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러한 例는 謙齋의 또 하나의 八景圖인 壯洞八景(國立博物館所藏)에서도 볼 수 있다. 이들 두 八景 가운데의 二·三景은 同名同景이고 筆法 特히 布置가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써 北部에는 더욱 細分된 八景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兩者는 다 紙本에 淡彩한 것이고 北部八景圖는 五九·五cm X三八·二cm 크기의 縱長幅(八曲屏)이며 後者壯洞八景圖는 一邊約三〇

cm의 帖本이다.

二

淸風溪는 白雲莊 옆 골짜기였던 것 같으며 八景中의 力作일 것이다. 墨彩에 若干의 淡靑彩를 섞었으며 검은 岩壁들이 左右에서 中心下部로 斜向하여 쏠려 있기 때문에 深遠形이 깊숙한 溪谷을 이루고 있다. 육어진 숲속에는 넓은 三段의 石壇위에 한 채의 茅亭(四모정)이 있고 그 奧部를 가린 白雲위에 「淸風溪謙齋」라 墨書하고



그 밑에는 「鄭」[敦]陰文方印 一顆가 찍혀 있다. 岩壁의 검은 集線皴는 땅서림 없는 줄기찬 反覆으로 磐石의 壯重을 얻었고 그 가운데 白雲을 서리게 하여 塵外의 仙境처럼 만들어 버린 것은 強한 主觀속에서 開花한 老練하고 獨特한 技法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老練한 處理能力은 다른 七景, 壯洞八景 또는 仁王霽色圖 등에서 거의 똑같이 넘쳐흐르고 있다. 壯洞八景中의 淸風溪에는 茅亭을 中心으로 二棟의 큰 瓦家가 그려져 있는데 이 一聯의 建物들은 아마 當代名士의 第宅이 었을 것이다. ① 聽松堂은 알려진 바와같이 中宗代 成守琮의 書室이었으며 그 터는 淸雲中學校의 뒤 언덕에 있다. 壯洞八景中에도 이와 거의 똑같은 聽松堂圖가 있으며 京城府史卷一에 紹介된 것까지 三幅(또는 그以上)의 聽松堂